지역 소식통

'제51회 고창모양성제'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10월의 어느 멋진 날, 전 국민이 사랑하는 KBS 전국노래자랑이 고창군을 찾아온다.

19일 고창군에 따르면 '제51회 고창모양성제(10월9~13일)'와 연계돼 'KBS 전국노래자랑-고창군편' 녹화가 10월 12일 오후 고창읍성 주차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9월23일부터 10월4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서 방문하여 가능하다. 고창군민과 관내 직장인, 학생 등이 신청자격이다. 예심은 10월 10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진행된다.

본 녹화에서는 초대가수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을 비롯해 '강혜연', '지원이', '배진아', '이현승'이 녹화에 함께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올해 정기분 재산세 40억원 부과

고창군이 2024년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0억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현재 토지(주택 부속토지 제외) 및 주택(재산세액 20만원 초과분) 소유자에게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더욱 편리하게 위택스, 가상계좌(본인이 아니어도 가능),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서치근 고창군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세의무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 9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군청 재무과및 읍면 담당 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청년 축제 주간' 개최

21~27일까지 문화 · 여가 프로그램 통해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목적

정읍시 청년지원센터(청정지대)는 '청년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청년축제 '주간행사 정주행: 정읍 청년 축제 주간 동안 행복만 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내 청년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축제 첫날인 21일에는 'Movie 온 가족데이'를 주제로 정읍CGV에서 '베테랑 2'를 두 차례 상영한다.

22일에는 청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미술소를 시작으로 스모어 쿠키 만들기, 인어공주 무드등 만들기, 테라리움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3일차부터 6일차까지는 근로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녁 시간대에 진행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에코 샴푸바, 이끼볼, 백드롭 페인팅, 자이언트 얀 가방 만들기 등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가 마련된다.

또한 청년 축제 주간 동안에는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 팀에게 여가문화 모임 활동비용을 지원한다. 청년 모임을 대상으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장에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존의 청년의 날 기념행사가 단발성 축제로 끝나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청년들의 문화·여가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번 주간 행사를 기획했다"며 "이번 축제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축제 주간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소통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정읍 청년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네트워크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주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국비 확보 비책 찾는다… 한훈 교수 특강 성료

업무능력 · 예산확보 능력 배양

정읍시는 지난 13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 강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는 직원들의 업무능력·예산확보 능력 배양을 위해 한훈 전북대학교 특임교수(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한 교수는 주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담당한 예산 분야의 전문가로, 강연에서 그간의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했다.

이날 특강에는 국가예산 사업부서의 실과소장 및 담당자, 교육을 희망하는 직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한 교수는 국가예산 확보 전략 수립,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법,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시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 많은 통찰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한훈 교수의 강의를 통해 예산 확보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며 "이는 지역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성매매 추방주간' 홍보 캠페인 추진

고창군은 2024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19일부터 25일까지 성매매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성매매 추방주간은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9월19일부터 25일까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먼저, 고창군은 9월 19일 오전 10시 고창군청 앞 회전로터리에서 출발하여 고창문화터미널까지 '성매매 없는 세상, 함께 걷는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라는 표어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 캠페인에는 고창군, 고창군의회, 고창경찰서, 고창종합병원, 고창교육지원청, 대한어머니회 고창지회 등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참여기관이 함께 했다.

이외에도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옥외 전광판, 온라인 게시를 통한 표어홍보와 유흥업소 성매매 불법행위 점검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안전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성매매 범죄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모두의 정원 해뜰마루' 운영

부안군문화재단, 환경 · 기후변화… 방송인 줄리안 경험 · 노하우 특강

부안군이 주최하고 부안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모두의 정원 해뜰마루' 프로그램에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참여한다.

'모두의 정원 해뜰마루'는 해뜰마루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주민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정원이 되고자 추진하는 2024 해뜰마루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줄리안은 벨기에 출신으로 비정상회담과 톡파원 25시 등 다양한 방송 활동 및 광고, 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심이 많아 방송을 통해 얻은 목소리를 활용해 환경을 위한 많은 활동을 실천 중이며 2016년부터 유럽연합 환경행동 친선대사로 기후위기, 환경, 제로웨이스트, 비건, 채식에 앞장서고 있다.

오는 23일 부안 해뜰마루에서 기후위기, 환경, 제로웨이스트를 주제로 한 '환경을 위해 시끄럽게'를 강연할 예정이다.

줄리안은 "한국어로 '변했어'라는 말은 보통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지만 변하지 않으면 제자리에만 머물게 된다. 더 나은 우리,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강의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모두의 정원 해뜰마루' 프로그램은 줄리안이 참여하는 해뜰마루 녹색 배움터 '그린아카데미'를 비롯해 새롭게 발견하는 자연의 소리 '해뜰마루 사운드워킹', 모두의 녹색문화 '그린피크닉', 자연 속 생태체험 '애벌레 캠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예술회관, 30일 열린음악회 개최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 · 팝핀현준 · 박애리 선보여

부안군은 2024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후원으로 수준 높은 공연을 군민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클나무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팝핀현준&박애리와 함께하는 열린음악회를 오는 30일 부안예술회관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클나무오케스트라의 '열린음악회' 시리즈는 매년 새롭고 다양한 기획으로 군민들에게 각광받는 공연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팝핀댄스의 1세대이자 스트릿댄스계의 선구자 팝핀현준과 국립창극단원으로 활동했고 대장금 OST와 쑥대머리 등의 음악으로 친숙한 국악인 박애리의 무대로 꾸며진다.

그와 그녀의 만남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으로 전통문화 판소리와 스트릿댄스의 두 문화가 어우러져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 냈으며 이 둘의 만남으로 전통에서 현대까지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덕분에 다양한 한국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으며 KBS 인기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등 다수의 대중매체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클나무오케스트라의 클래식함과 팝핀현준의 스트릿댄스의 활력, 박애리의 진한 감성이 군민들에게 선선한 가을을 맞아 활력을 불어넣고 감성의 풍성함을 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클나무오케스트라는 클래식 전공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민들에게 클래식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북 최초의 민간 오케스트라이며 2009년 창단돼 뮤지컬, 발레,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주목과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매년 30~40회의 연주회를 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